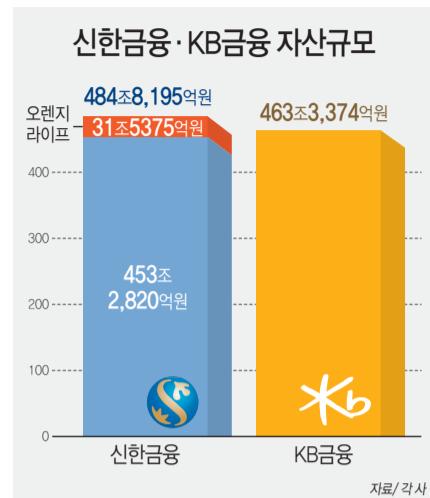


오렌지 품은 신한금융, 리딩뱅크 재도약 날개

〈오렌지라이프 : 옛 ING생명〉

MBK파트너스와 인수SPA 체결
총 자산 453조→484조로 늘어
인수 후 463조 KB금융 앞질리
연말까지 순이익부문 접전 예상



신한금융지주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를 확정지은 가운데 지난해 KB금융지주에 내준 리딩뱅크 왕관을 찾아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금융지주는 5일 MBK파트너스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주당 4만 7400원에 라이프투자유한회사(MBK파트너스)가 보유한 오렌지라이프 지분 59.1%를 인수하는 안을 의결했다. 총 인수가는 2조2989억원.

금융권에선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하면서 KB금융을 제치고 리딩뱅크를 재탈환할지 주목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2008년 KB금융을 제치고 1위 금융사 자리를 차지한 이후 계속 리딩뱅크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이 자

리를 KB금융에 내줬다. 총자산이나 순이익 기준 모두 KB금융에 뒤졌다.

하지만 신한금융이 ING생명을 인수하면서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인수 완료 후 신한금융그룹의 총자산은 453조원에서 484조원으로 늘어나 자산 규모로는 463조원의 KB금융을 앞지르게 된다.

올 상반기 순이익도 신한금융이 1조 7956억으로, KB금융(1조9150억원)보다 1194억원 적었다. 지난해 오렌지라이프

의 순이익은 3402억원이었다. 지분율(59.15%)을 고려하면 2012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추정하는 이자비용(500억~900억원)을 감안하면 순이익 증가효과는 1000억~1500억원이다. 두 지주회사 간을 순이익 예상치는 KB금융이 2400억원 가량 많다. 순이익부문은 연말까지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신한금융은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한 1등 금융사 도약을 꿈꾸고 있다. 신한금융은 LG카드

(인수가 7조2000억원), 조흥은행(3조 4000억원) 등 대형 금융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해 국내 최고 금융사로 도약 중이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해 거둘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KB금융과의 순이익 격차 감소와 신한생명의 자본확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2017년부터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연간 약 3000억원 안팎의 순이익 격차가 있는데 신한지주가 오렌지라이프를 인수

하면 약 2000억원의 순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KB금융과 벌어진 순이익 격차가 1000억원 수준으로까지 좁혀질 전망이다.

리딩뱅크 경쟁에서 두 지주사는 비은행 부문에서의 이익구조를 개선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올해 상반기 신한금융의 은행 부문 순이익 기여도는 67.4%에 달한다. 직전년도 동기(56.3%)보다 11.1%포인트 높아졌다. 신한카드 14.8%, 증권 10%, 보험 4% 수준이다.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 인수로 은행에 집중된 수익구조 변화를 꾀할 전망다. 신한금융은 생보업계 6위와 8위 생명보험회사를 계열사로 두면서 비이자수익 비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말 KB금융의 순이익 중 은행의 비중은 67.6%(1조2945억원)였고, 비은행 비중은 32.4%(6205억원)였다. KB금융은 M&A 가능성과 더불어 증권·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부문 ‘보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신한생명-오렌지 당분간 ‘투트랙’ 운영

ORANGE LIFE

오렌지 노조, 고용보장 7년 등 요구
신한, 구조조정 불가피… 대립 예상
합병작업에 상당한 시간·노력 소요

신한금융지주가 5일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의 지분 인수를 확정지은 가운데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점통폐합 등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데다 조직문화가 전혀 달라 서로 융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

신한금융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렌지라이프의 지분 59.15%(4850만주)를 주당 4만7400원, 총 2조 2989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오렌지라이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측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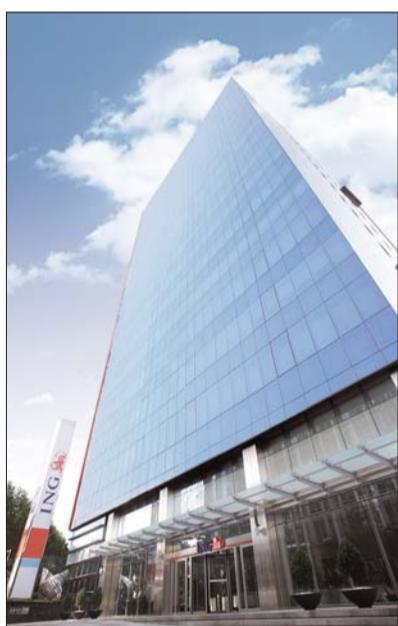
신한금융은 매수사 실사와 추가 협상을 거쳐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로 생보업계 자산규모 8위인 신한생명(20조7254억원)은 오렌지라이프(31조4554억원)와 합치면 총자산 규모는 62조3000억원으로 미래에셋생명을 제치고 단숨에 5위 자리에 등극하게 된다. 4위 NH농협생명(64조4000억원)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치다.

다만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와의 합병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인수합병(M&A)이 그렇듯 고용보장 이슈가 가장 크다. 오렌지라이프 노조는 신한금융에 7년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사례와 비교하면 2~4년 많은 수준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3년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를 인수하면서 노조와 3년 고용보장과 단체협상



ING생명 순화동 본사 /ING생명

내용 유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2013년 12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이끄는 라이프투자유한회사에 매각된 지 7개월여 만에 전체 직원의 약 20%를 감원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먼저 임원 18명을 포함한 부서장 이상 임직원 50여명이 퇴사했고, 이후 7월 입사 5년차 이상과 차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해 150여명 등 총 2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 같은 선례가 있다 보니 오렌지라이프 내부에서는 고용보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렌지라이프 노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용안정 보장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인 고용안정 보장의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며 요구사항 첫 번째로 ‘고용안정 보장’을 꼽았다.

이밖에 노조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독립경영 보장, 노동조합 보장, 경영비전 제시, 최고에 걸맞은 매각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점통폐합 등에 따른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식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희망퇴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별도 법인 체제의 허니문 기간을 거쳐 희망퇴직이 현실화될 경우 규모와 조건 등에 따라 노조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상이한 조직문화 통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국계(ING)와 사모펀드(MBK파트너스)가 대주주였던 오렌지라이프와 금융지주사의 보험 계열사로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신한생명의 조직문화는 상당히 다르다.

인력 구조도 차이를 보인다. 신한생명은 자사 직원이, 오렌지라이프는 보험설계사가 지점장을 맡는 구조다.

지점통폐합에 신한금융이 어떤 방식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인력 손실도 예상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임직원 수는 각각 1290명, 787명이다.

신한금융은 생명보험 계열사를 당분간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추후 합병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LG카드, 조흥은행 통합 사례처럼 화학적인 결합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조흥은행을 인수한 뒤 3년간 2개 은행(듀얼 뱅크) 체제를 유지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합병을 하기까지 구조조정 이슈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도 “금융지주사의 인수 작업보다 계열사 간 합병 문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한생명은 보수적인 분위기로 공채 직원이 많은 반면 오렌지라이프는 남성 보험설계사 위주의 활동적인 분위기에 경력 직원이 대부분”이라며 “합병 후에도 다른 사내 분위기에 서로 융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s91@metroseoul.co.kr

상반기 日 카드사용액 2.3조 ‘사상최대’

한은, 작년보다 4.4% 증가

신용 3.7%·체크 7.1% ↑

4910억원이었다. 지급카드 전체 이용금액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지난해(20.9%)보다 확대됐다.

6월 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1억2900만장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는 2.8% 증가한 1억200만장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발급이 활발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일평균 결제 건수는 각각 3438만건, 2164만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6.3%, 7.5% 증가했다.

건당 결제금액은 신용카드가 4만3782원, 체크카드가 2만2673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 2.1% 감소했다. 편의점, 대중교통 등에서의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건당 이용금액의 소액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은 하루평균 8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 증가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일평균 58조5000억원으로 9.8% 증가했다. 이중 모바일 뱅킹의 경우 등록고객이 9977만명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7.6% 증가했다. 반면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일평균 20조6000억원으로 0.1% 감소했다.

/김희주 기자

바이오·제약 불공정 거래 차단한다

식약처-금융위 업무협약

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가 이뤄지면 금융위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한다.

식약처와 금융위는 5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은 신약 개발 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돼 주식불공정 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위는 식약처에서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